

## 올림포스 (Olympos)

올림포스는 그리스 본토 북쪽 토타리아 지방과 마케도니아(Makedonia) 지방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템페(Tempe)계곡을 굽어보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최고봉 2,917미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눈 덮인 이 산의 가파른 봉우리들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열두 신들이 산다고 믿었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일찍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속하는 신들의 이름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아테나이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프리즈의 중앙에 보이는 신들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네,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테메테르, 디오니소스, 헤파이스토스, 아레스다. 그러나 참주(僭主) 페이시스트라토스(Pesistratos 기원전 600년경~527년) 일족이 아테나이의 아고라에 세운 열두 신들의 제단에는 헤스티아(Hestia) 여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헤스티아가 열두 신의 하나였다가 나중에 디오니소스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올림포스는 기원전 776년경부터 각종 경기가 열리던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북부 엘리스 지방의 올림피아와는 다른 곳으로 후자는 전자로부터 남쪽으로 275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다.

## 아르고스 (Argos)

아르고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동부, 바다에서 5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은 또한 이 도시에 속한 영토인 아르골리스(Argolis) 지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호메로스에서 이 이름은 때로는 트로이아 전쟁 때 디오메데스가 통치하던 아르골리스 지방의 수도를, 때로는 뮈케네에 왕궁을 갖고 있던 아가멤논의 통치 지역을, 또 때로는 아르고스가 아카이오이족의 주요 거주지의 하나고 펠로폰네소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인 까닭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 맥락에서 ‘아르고스인들’이란 말은 호메로스에서는 대개 넓은 의미로 쓰여 그리스인들 전체를 가리킨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은 헬라스라는 이름과 결합하면 그리스 전체를 가리킨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는, 토타리아 지방의 페나이오스 강변의 평야 지대를 가리키는 ‘펠라스기콘 아르고스’(Pelasgikon Argos) 와 구별하기 위해 흔히 ‘아카이오이족의 아르고스’(Achaikon Argos) 라고도 불린다.

## 뮈케네 (Mykene 복수형 Mykenai도 자주 쓰인다)

뮈케네는 아르골리스 지방에 있는 도시로 아가멤논의 왕궁이 있던 곳이다(아르고스 참조).

## 스파르테 (Sparte 라/Sparta)

스파르테 일명 라케다이몬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부 타위게톤(최고봉 2,407미터) 산맥과 파르논(최고봉 1,935미터) 산맥 사이에 있는 분지 라코니케(lakonike) 지방의 수도다. 라케다이몬이란 이름은 대개 스파르테를 가리키지만 라코니케 지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곳 에우로타스(Eurotas) 강변에 메넬라오스의 궁전이 있었다.

## 필로스 (Pylos)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남부 멧세네 지방의 도시로 벨레우스와 네스트르와 네스토르가 통치하던 왕국의 수도다.

## 헬라스 (Hellas)

헬라스와 헬레네스(Hellenes)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고전시대(기원전 480~323년)에 걸쳐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이 없어 그리스인들을 ‘아카이오이족’, ‘아르고스인들’, ‘다나오스 백성들’ 이라고 부르는 호메로스에서는, 헬라스와 헬레네스는 각각 펠레우스와 아킬레우스 부자가 통치하던 남(南)토타리아의 한 지역과 그곳 주민들을 가리킨다. 헬라스라는 말은 아르고스라는 말과 결합하면 그리스 전체를 가리킨다.

## 프티아 (Phthia 원전 Phthie)

토타리아의 남부 지방에 있던 뮈르미도네스족의 거주지로 헬라스와 더불어 펠레우스와 아킬레우스 부자가 통치하던 지역이다.

## 테바이 (Thebai 단수형 Thebe)

호메로스에서 테바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셋이다. a) 카드모스가 이스메노스(Ismenos) 강변에 세운 보이오티아 지방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로 그 성채는 카드모스의 이름에서 따와 카드메이아(Kadmeia)라고 불린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이 도시에는 일곱 성문이 있다고 한다(『일리아스』 4권 406행; 『오뒷세이아』 11권 263행 참조). 복수형과 단수형이 다 쓰인다. b) 나일 강변에 있던 상부 이집트의 옛 수도로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디오스폴리스 메갈레(Diospolis megale 라/Diospolis magna '제우스의 큰 도시' 란 뜻)라고 불렸으며 지금의 룩소르(Luxor)와 카르낙(Karnak)이다. 호메로스는 이 도시를 '일백 개의 문이 있는' 부유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일리아스』 9권 381행 참조). 복수형만 쓰인다. c) 뮈시아 지방에 인접한 트로이아스 지방의 플라코스(Plakos) 산기슭에 있던 도시로 그곳에 핵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의 아버지 에에티온(Eetion)의 궁전이 있었으나 아킬레우스에 의해 파괴된다. 『일리아스』 22권 479행을 제외하고는 단수로만 쓰인다.

## 엘리스 (Elis)

엘리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북 지방으로 북쪽으로는 아카이아와, 동쪽으로는 아르카디아와, 남쪽으로는 멧세네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해 있다. 알페이오스(Alpheios) 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에페이오이족(Epeioi)의 통치하에 있었고, 아카이오이족이 거주하는 남부 지방은 네스토르의 영토에 속했다.(『일리아스』 2권 615,626행).

## 크레테 (Krete 라/Creta)

트레테는 그리스의 남동쪽 소아시아의 서남쪽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그리스의 가장 큰 섬으로 그 위치상 유럽과 이집트, 키프로스, 아시아를 잇는 징검돌 역할을 해왔다. 크레테에는 기원전 3000~1000년까지 미노스 문명이라 불리는 고도로 발달된 해양 문화가 꽃피었으며 호메로스에 따르면 일백 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일리아스』 2권 649행 참조) 그중 반수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주요 도시는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고르뤼스, 릭토스(Lyktos) 등이다.

## 이타케 (Ithake 라/Ithaca)

이타케는 그리스 본토의 중서부에 있는 아카르나니아 지방의 서쪽, 케팔레니아 섬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오니아 해의 작은 섬으로 오뒷세우스의 고향이다.

## 트로이아 (Troia 원전 Troie)

트로이아는 일리오스(서사시에서 쓰인다) 또는 일리온(비극 등에서 쓰인다)이라고도 불리는데 소아시아의 북서쪽 펠레스폰토스 해협 즉 지금의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남쪽으로 6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다.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 목마 등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하인리히 쉘라만(Heinrich Schliemann)의 발굴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트로이아에서 여러 층의 주거지 흔적이 발굴되었는데 그중에서도 VII a가 기원전 1250년경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었음이 확인되어 바로 이 시기에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데 (Ide 라/Ida)산

이데 산은 프뤼기아 지방에서 뤼시아 지방으로 뻗어 있는 산으로 최고봉 가르가룬(1,767미터)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다. 크레테 섬에도 이데 산이 있다.

## 뤼키아 (Lykia 원전 Lykie)

뤼키아는 a) 소아시아의 남해안, 카리아 지방의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그곳 주민들을 지휘하는 장수는 사르페돈(Sarpedon)과 글라우코스다. b) 이데 산의 북쪽을 흐르는 아이세포스(Aisepos) 강가에 있는 지역으로 그곳에 켈레이아라는 도시가 있다. 그곳 주민들을 지휘하는 장수는 판다로스다. 뤼키아인들이라는 이름은 흔히 트로이아를 도우러 온 원군들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스카만드로스 (Skamandros)

스카만드로스는 신들 사이에서는 크산토스라고 불리는데 이 강은 더운 샘과 찬 샘에서 발원하여 트로이아 서남쪽의 평야를 관류하다가 시모에이스 강과 합류한 다음 시게이온(Sigeion) 곳의 북쪽에서 헬레스폰토스 해협으로 흘러든다.

## 트라케 (Thraike 원전 Threike)

트라케는 로마 시대 이전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적이 없으나, 대략 북쪽으로는 이스트로스강(Istros 오늘날의 도나우 강 하류)과, 동쪽으로는 흑해 및 보스포로스(Bosporos) 해협과, 남쪽으로는 프로폰티스(Propontis) 해, 헬레스폰토스 해협 및 북 마케도니아 지방과, 서쪽으로는 일뤼리콘(Illyrikon) 지방과 경계를 이루는, 톳살리아 북쪽 지역을 통틀어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리스인들은 그곳 주민들을 미개한 야만족으로 여겼다.